

朴仁浩 회장

- ▲ 발명인
- ▲ 한국가로수보호(주) 회장
- ▲ 국제발명메달리스트회 3대 회장
- ▲ 국내외 발명전 수상 및 공로표창 20여회 수상
- ▲ 산업포장 수상

항상 최선을 다하는 보통사람

▲회장님의 이력과 호울뎃개의 발명동기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지극히 보통사람입니다. 발명에 몰두하는 것처럼 내 이웃사촌이 사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보통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다보니 공부(경영대학원 및 최고경영자과정)도 하게 되는 등 조금은 힘이 들고 벅차기도 했지만, 그 속에 행복이 있고 보람도 있더군요.

제가 가로수 호울뎃개를 발명하고자 작성한 것은 79년 가을이었습니다.

'75년 3구3탄식 가정용 온수보일러를 발명하여 벌인 사업이 처음에는 크게 번창했으나 과다투자로 실패하는 바람에 저는 빈손이 되어 무작정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무심코 가로수를 보게 되었는데, 콘크리트에 덮혀 물을 먹을 수 없는 가로수들의 신세가 제 자신 만큼이나 불행하다고 느껴, 가로수들을 위한 호울뎃개를 발명하기로

나의 發明

“ 머리속에는 언제나 물음표(?)가 가득하고, 가슴속에는 무한한 희망과 이상이 있어 나이보다 훨씬 젊어보이는 發明企業人 朴仁浩 한국가로수보호(주) 회장(53).

발명인이라는 직함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여 발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회장은 그가 사는 지역사회에서는 「인간 상록수」로 불리울 정도로 지역사회발전에도 공헌하여 만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八方美男이

결심했습니다. 이미 이보다 복잡한 수많은 발명을 해본 경험이 있어 발명과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자금 문제로 많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3백 60여건 발명

▲회장님이 그동안 발명하신 발명품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등록을 받았거나 출원중인 발명을 모두 합하면 3백60여건쯤 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가로수 보호 호울뎃개, 산업폐기물인 폐유를 이용한 대체 연료, 유아용 지능 젓병, 살충제가 함유된 유기질 비료, 빌딩계단용 스리부(예술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들 발명품중 호울뎃개는 이미 전국에 보급되었으며, 스리부는 금년말 완공되는 저희 사옥부터 선보일 계획이며, 이밖에 3개의 발명품도 빠른 시일안에 직접 생산 보급할 계획으로,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발명비결과 기법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발명이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적을 창조하는 행위나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머리속에는 항상

나의 發明技法

기도 하다.

朴회장이 발명한 가로수 호울덮개는 가로수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느곳에서나 볼 수 있다.

생전에 「발명인 집성촌」과 「발명박물관」등을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줄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는朴회장을 찾아 자리를 같이하고 그의 하늘같은 포부를 들어 보았다. ”



물음표(?)가 터죽대감처럼 자리하고 있어 언제나 작은 일에서부터 품기 시작한 의문이 바로 발명의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살아가나, 발명을 위해 사물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의문을 가지고 물음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 「물음표(?)인생」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발명은 의문, 즉 물음표(?) 인생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저는 영감이 떠오르면 즉시 기록하고, 그 영감의 소재와 자문자답하며 문제를 풀어 갑니다. 또 문제가 풀려 발명이 이론적으로 정립되면 시작품을 만들어 보고, 그 실용성이 인정되면 시장성을 조사한 다음 서둘러 출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3백60여 발명품은 모두 물음표(?) 인생의 의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호울덮개도 「왜 가로수의 근원부를 콘크리트로 덮어버려 물도 먹을 수 없게 해버렸을까?」하는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지요.

이 의문이 국내 유일의 신개발 특허품인 호울 덮개를 탄생시켜, 실용신안 제21570호의 8건, 의장 제 30896호의 1백19건을 등록받게

됐지요. 그뿐만이 아니지요. 현재 출원중인 것도 1백여건에 이르지요. 아마 단일 제품이 이처럼 많은 권리로 무장된 것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수목보호 호울덮개의 특징과 용도는요?

◎이미 호울덮개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느낀 것처럼 첫째, 가로수의 근원부를 보행인의 답압으로부터 보호, 수분및 산소를 잘 흡수토록 하여 수세를 강하게 하며, 둘째, 비료주기가 편리할뿐만 아니라 낙엽이 들어가 쌓이고 썩어서 거름이 되며, 셋째, 오염된 도시 공기를 흡수하여 산소의 증산요인을 만들며, 넷째, 한번 설치로 반영구적이면서 도시의 가로를 아름답게 가꾸며, 다섯째, 수목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고 문화국민의 긍지를 갖게 한다는 것 등입니다.

모양(의장)도 다양하여 가로수, 공원, 아파트 지역, 일반주택 정원, 교회및 사찰, 관광지, 공공시설, 체육공원, 학교 조경등 실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신용과 내조가 문제해결

▲발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기업화 방법은 무엇이였습니까?

◎앞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중의 하나였습니다. 다행

히 가장 큰 재산인 신용과 내자의 내조가 지극하여 해결할 수 있기는 했지만…….

기업화 방법도 특이했습니다. 겨우겨우 어렵게 생산한 시제품 10개를 광고도 할겸 은평구청 앞에 설치(기증)하였는데, 그것이 의외로 반응이 좋아 관납의 길이 열린 것이지요. 저는 그때 신발이 닳도록 각 구청을 뛰어다녔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어 중구청을 시작으로 납품의 길이 열려 전국으로 확산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첫 공사는 서울역에서 시청앞까지의 설치였습니다.

▲회장님의 발명을 통한 국내외 수상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77년 과학기술처장관상(금상), '78년 건설부장관상, '79년 제네바국제발명전 금상, '81년 우수발명 대통령 표창, '82년전국우수발명전 금상, '89 뉴욕 및 제네바 국제발명전 수상, '84년 산업포장 등 20여회 정도입니다.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성공한 발명과 발명인이란 어떤 것이지요?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시작입니다. 특허는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명을 하여 특허를 받는 과정보다 특허를 받은 다음 더욱 더 노력하여 기업화를 이룬 발명이 성공한 발명이고 성공한 발명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발명인은 세상에 주고가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디슨처럼 역사에 남을 만한 발명을 남기는 것도 성공한 발명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북선과 고려청자등을 발명한 우리 조상들도 성공한 발명인이라 할 수 있지요.

▲가장 이상적인 발명인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지속적인 물음표(?) 정신+꾸준한 반복 노력+해결+인류문화 발전에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발명에 임할 때 인류에게는 행복이, 자신에게는 보람이 있을 것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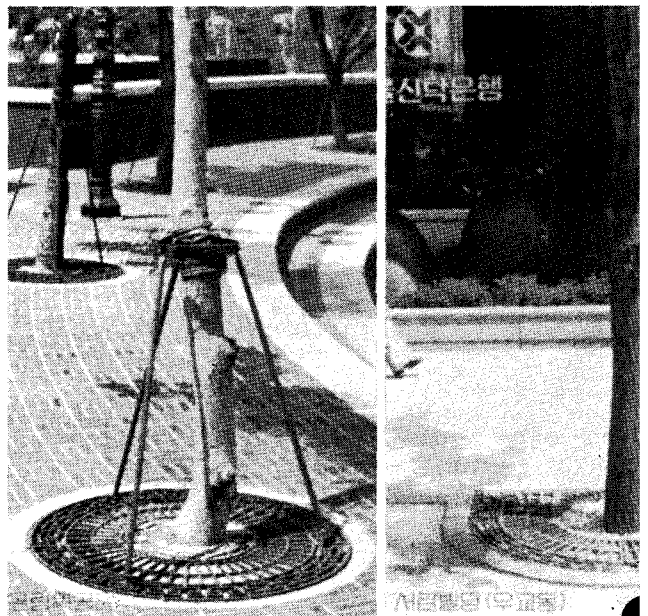
이는 저의 발명철학이기도 한데, 최근에 발명하여 지난 4월 제네바국제발명전에서 동상을 받은바 있는 저의 「유아용 지능젓병」도 여기에서 비롯된 발명입니다.

저는 기존의 젓병을 대하는 순간, 엄마의 젓가슴과 이질감이 있어 아기가 공포감을 느껴 소화불량이 자주 오고, 정서가 결핍되어 성격 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2개의 엄마의 인조 젓가슴을 젓병에 설치하는 것을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서둘러 이론적으로 정리하여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실험결과 아기는 젓병에서 엄마의 사랑을 느꼈고, 정서 또한 풍부하게 자라 주었습니다. 특히 두손과 두손가락으로 인조 젓가슴의 젓꼭지를 만지작거리는 과정에서 아기는 운동이 됨과 동시에 지능도 향상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기가 두손과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지능이 발달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요.

저는 우유병과 아기 사이의 무언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 유아용 지능젓병을 발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저는 완벽한 발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발명이라 할지라도 물음표(?) 정신으로 관찰하면 어딘가 개선할 점이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 예로 세계적인 발명품인 「606주사약」은 6백5회를 실험(실패)를 거쳐 6백6회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발명인의 길은 마라톤 경주

이때문에 발명인의 길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낙오자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신의 힘을 다하여 한번 끝인지점을 통과한 발명인에게에는 실패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또 닥칠지도 모르는 실패와 내리막길이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삼십수년동안 각고의 세월속에서도 꾸준히 노력하여 발명의 끝인지점을 한번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바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실패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백전의 어려운 전쟁을 다 겪고난 용장이라고나 할까요.

▲이번 기회에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나름대로 기반을 잡았지만, 우리나라 발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발명진흥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 둘째, 전국민의 발명화 정책 추진, 셋째,

책임있는 발명보호 정책 추진, 넷째, 발명인의 우수발명품에 대한 조건없는 지원 정책등이 시급히 마련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당국은 다소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발명은 부의 원천, 국력의 바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보다 대폭적이고 강력한 발명진흥정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성공한 발명기업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에게는 꼭 하고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의 재산중 30%만 가족에게 물려주고, 70%는 후대를 위한 발명진흥사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명인 집성촌(마을) 마련, 발명인 공동개발 연구실 마련, 발명품 전시관 마련등을 통하여, 발명인들이 마음놓고 공동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터전을 닦고자 합니다.

후대에게 발명정신을 키워주는 방법 마련 차원에서 계획된 저의 이 청사진은 가능한한 서둘러 시작할 계획도 밝혀두는 바입니다.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더 이상의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박회장은 이미 위 계획 실천을 위해 대지를 물색 중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긴 시간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귀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王>

한 국 발 명 특 허 협 회 신 간 안 내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들 -발명의 발상기법 중심- 규격: 국판 240면 가격: 3,000원	-발명의 발상기법 총망라- 발명인의 길 규격: 국판 200면 가격: 2,000원	-발명 특허 실시 가이드- 발명인의 세계 규격: 국판 200면 가격: 2,500원
판매처: 한국발명특허협회 자료판매센터 (전화: 551-5571~2)		